

3월의 기도

“야훼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1절>



-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4.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6.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야기했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DCEM 성회안내

2017년 3월 20일 일본 카나가와의 순복음아마토 교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을 주강사로 초청하여 '선교20주년 기념 축복성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김태승,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 순복음제주도중양교회(김대수목사),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원소선, 정경자, 조양자, 한사랑순복음교회(박유성목사), 최병규,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삶과 때

19세기 미국의 변호사이자 정치가이며, 두 번에 걸쳐 국무장관을 지낸 다니엘 웹스터는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쇠가 달았을 때 두드려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지 굳어져 놓으면 쇠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으니 기회가 왔을 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 버리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위해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왜 하늘을 쳐다볼까요? 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달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밀려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기 때문입니다. 바닷물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달을 쳐다봐야 합니다. 보름달인지 초승달인지 그믐달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사는 것도 현실만 바라보고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알고 성공하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 삶의 물이 들 때와 날 때를 분별하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와 때를 따라 살 때 성공과 평안과 행복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여 인본주의적으로 악한 꾀를 따라 산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파멸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하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Februar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태국대성회 '축복'과 '신유' 그리고 '기적의 축제' 성료

태국교회 교파 초월해 한 마음으로 성회 위해 기도 대만, 홍콩 등 인근 아시아 목회자와 성도 대거 참석



1996년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태국성회가 열린지 약 20년 만에 태국 기독교 대축제가 열렸다.

세계최대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설립자이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주강사로 열린 이번 성회에 태국교회들은 교파를 초월해 교회성장과 새로운 부흥의 효시가 될 것을 기대하며 지난해부터 기도로 준비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변 아시아국가 목회자와 성도는 물론 레바논과 파키스탄 등에서도 참석해 성회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번 성회는 단순한 태국교회들만을 위한 성회가 아닌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 성령축제였다.

2월 7일부터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 순복음동경교회 담임)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성회에서 8일과 9일 이틀간 조용기 목사는 저녁 성회를 인도하며 이번 성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선물했다.

조용기 목사는 17살에 폐병으로 죽어가던 중 누나의 친구로부터 받은 성경을 읽고 치료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통해 폐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음을 간증했다. 조용기 목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에 품은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음을 입술로 고백할 것”을 강조하며 4차원의 영성과 바라봄의 법칙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 전했다.

설교 후 조용기 목사가 결신기도와 더불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신유 체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이 이어졌다. 빠카십 목사는 “귀가 안 들리고 목이 뻣뻣해서 힘들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 후 귀가 잘 들리고 목을 움직이는데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고, 조용기 목사의 결신기도로 처음 신앙을 고백한 빠즈왓 성도는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고 뛰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내가 이렇게 걷고 뛰게 됐다.”며 자리에서 뛰며 건강해진 무릎을 과시했다. 이외에도 많은 신유와 기적이 성회 내내 나타나 참석자들의 기도 함성은 성회가 진행될수록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성회에 참석한 태국기독교총회 총회장 타위삭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태국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번 성회를 계기로 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을 믿음으로 꿈꾼다.”고 말했다.

심고 거두는 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장 8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오늘 '심고 거두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농부가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십일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1.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일으켜 세운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극진히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조건이 십일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에 “너는 마땅히 매 년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야훼 앞 곧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도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데 뭐 하러 십일조를 내라고 하시냐?” 그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주고받는 관계, 십일조의 관계가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십일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

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흔들어 눌러 넘치게 해서 여러분에게 안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복을 받고 그 은총과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2.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보는 것

하나님은 십일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레위기 27장 30절에는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의 성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 계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십일조를 내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십일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3.신앙의 진실함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십일조를 드리면 축복을 주고, 안 드리면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싶으면 시험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일조에 대해서는 시험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아깝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포켓에 돈이 좀 있으면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아끼지 말고 그 거 다 내라”라고 말씀을 하셔도, “아이고 조금만 내고요. 또 필요 있으니까 아버지, 참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봐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희생을 안 하고 섬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심고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하는 사람은 욕심으로 인해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일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아는 생각 내에서 십일조를 도둑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십일조를 충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를 100바퀴 이상 돌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물질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직접 시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올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국 교회 성령의 운동으로 부흥 전기 마련

영목회· 순복음선교사 등 참석, 순복음강남교회 한국무용단 등 한국의 미 선보여



태국교회는 1996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성회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불교가 만연한 태국임에도 불구하고 오순절교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번 성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통역한 마누씩 목사와 아누팜 목사는 각각 성도 2000명이 출석하는 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켰다.

마누씩 목사는 “21년 전과 마찬가지로 조용기 목사가 가져온 성령의 불이 태국 전역에 뜨겁게 타올라 태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전기

를 마련할 것”이라며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위해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성회 주강사인 조용기 목사를 응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인근 국가의 순복음선교사들도 함께 했다. 이번 성회를 주관한 DCEM 사무총장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순복음동경교회 담임)를 비롯해 순복음강남교회 최명우 목사, 순복음중동교회 김경문 목사, 순복음아세안총회장 한치완 선교사와 인도차이나 지방회장 김병천 선교사와 지방회 소속 선교사,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회장 안



정복 장로와 소속 장로들과 회원, 김종복 장로(4차원연합회장), 이영길 장로(외무분과위원장), 임익주 장로, 동북아선교회 박종은 장로, DCEM후원회장 유소영 권사와 남편 키요타 성도 등이 참석했다. 특히 순복음강남교회 한국무용단과 뿔라콰이어와는 각각 아름다운 한국의 고전무용과 찬양을 통해 성회 참석자들에게 은혜와 한국의 미를 선사했다. 성회 참석자들은 한국무용단의 공연과 뿔라콰이어의 찬양을 스마트폰에 담아 SNS로 공유하고 기념사진을 부탁하는 등 인기가 많았다.

태국 성회 이모저모



◎ 공항 환영

2월 7일 태국 수완나폼 국제공항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환영하기 위한 많은 인파가 몰려 공항 관계자들을 당황시켰다. 현지 크리스천들은 한 손엔 태극기와 한 손엔 환영한다는 내용의 깃발을 세차게 흔들며 조용기 목사와 한국에서 온 일행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또한 교통체증과 테러 등을 대비해 태국 경찰들이 조용기 목사의 이동 시에는 항상 에스코트하며 안전과 의견에 최선을 다하는 등 국빈급 대우로 환영했다.

◎ 환영회 및 환영만찬

조용기 목사의 환영회 및 환영만찬이 2월 7일 TCC에서 현지 태국실업인들의 주최로 진행됐다. 성회 장소에는 일찍부터 조용기 목사를 환영하기 위한 인파가 몰려 도로 양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와 환영메시지가 적힌 깃발을 흔들었다. 파키스탄에서 온 아십 파라트 목사는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를 직접 보는 것이 꿈이었다.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다”며 가장 큰 목소리로 한국에서 온 일행들을 환영했다.

이번 성회 장소인 TCC 담임 위라택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최대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세운 조용기 목사를 모시고 이번 성회를 TCC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4번 째 태국 방문이며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이 태국에 은혜와 축복을 가득 부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 태국 3대 교단장들 참석, 태국 기독교 축제 태국침례교 총회장 통차이 목사, 태국기독교



교총회장 타위썩 목사, 태국복음주의협의회 총회장 위라차이 목사까지 태국을 대표하는 3대 교단장은 물론 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지도자들이 초교파적으로 참석한 이번 성회는 20여 년 전 조용기 목사의 태국성회가 큰 계기가 됐다.

위라차이 목사는 “오래 전 조용기 목사의 성회를 통해 태국 크리스천들이 은혜를 받고 태국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번 성회를 통해 그 때를 능가하는 은혜와 부흥이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성회 참석동기를 밝혔다. 또한 태국 교회가 조용기 목사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회에 참석한 태국 교회 대표 교단장들은 조용기 목사에게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태국을 위해 항상 기도해줄 것을 부탁했다.